

한국문화의 원류, 단군신화에 나타난 곰과 호랑이의 상징성

Study on the Symbol of Bear and Tiger in Dangun Myth

저자 (Authors)	김종대 Jong-Dae Kim
출처 (Source)	다문화콘텐츠연구 (4) , 2008.12, 15-22(8 pages)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4) , 2008.12, 15-22(8 pages)
발행처 (Publisher)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culture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01711
APA Style	김종대 (2008). 한국문화의 원류, 단군신화에 나타난 곰과 호랑이의 상징성. 다문화콘텐츠연구(4), 15-2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10 16:2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문화의 원류, <단군신화>에 나타난 곰과 호랑이의 상징성

김종대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Study on the Symbol of Bear and Tiger in Dangun Myth

Jong-Dae Kim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doggabi58@naver.com>

요 약

단군신화에서 곰과 호랑이는 중심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이들 동물이 과연 우리 민족에게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단군신화에 수용되고 표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듯하다.

먼저 곰과 호랑이는 모두 신성한 동물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신성성이 나타나는 지역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곰의 중심적인 신앙지역은 한반도의 북부지역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단군신화가 형성된 중심지역이 지금과 달리 한반도보다 더 북쪽인 만주나 시베리아 등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된다.

그런 측면과 달리 한반도에서는 산신신앙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호랑이의 신격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호랑이를 둘러싼 다양한 신앙의 모습, 예컨대 잡귀를 물리치는데 가장 영험한 능력을 보여준 동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 등은 좋은 예이다. 이것은 바로 한반도의 문화가 호랑이를 중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왕건의 가계에 호경장군을 평나산 산신과 결합시키는 작위성은 당대의 민중들에게 호랑이가 가장 중요한 믿음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단군신화에 수용된 곰과 호랑이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선사시대의 신앙적 전통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신앙적 전통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호랑이 중심의 문화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런 사실을 밝히는데 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Bear and Tiger in Dangun Myth are regarded as a sacred beings. Therefore, Bear and Tiger were considered as deities in the era of Dangun and It is clearly confirmed through religious ceremonies which has been performed upto now. However there is big difference between regions that Bear-belief and Tiger-belief have been transmitted respectively. It has to be considered as very important task because Dangun Myth is the significant reference material that examines origin of the Korean race.

The regions that people worship Bear are further north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Siberia, Mongolia, and Manchuria. In the Korean Peninsula Tiger has been even more considered as a deity, whereas Bear has been described as a dull animal. Moreover

Tiger has been regarded as a Mountain god and believed that has spiritual power to drive evil away .

Based on these contrast symbolic meaning of Bear and Tiger, there is strong possibility that Dangun myth was originated in the northern side of the Korean peninsula, as the transmission of Tiger belief has been more common than Bear belief i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키워드 없음

I. 序

우리나라를 건국한 신화인 단군신화에 대한 연구는 엄청난 양의 축적을 이루었다. 신들의 이야기에 서부터 숫자 3의 개념, 그리고 당대의 문화적 배경을 읽어내는데도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민족의 원류를 해명하는데 단군신화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

이러한 단군신화의 내용 중에서도 주목할 것이 등장하는 동물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동물은 용이다. 이것은 불교의 유입과 더불어 중국에서 들어와 한국 문화의 상징처럼 다른 동물들을 평정시켜 버렸다. 하지만 단군신화에서는 용이 등장하지 않는 대신에 곰과 호랑이라는 맹수가 등장하여 중심적인 존재로 부각되어 있다.

단군신화에서의 문화인물은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뜻을 펼친 환웅(桓雄)이다. 환웅은 지상에 내려올 때 무리三千을 끌고 내려오는데, 이들은 지상세계에 있던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맥 중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인물들만 등장하고 지상의 세계에는 인간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곰과 호랑이라는 동물만이 나타나는데, 이들 동물의 존재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를 밝히는데 본 논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들 동물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곰에 집중된 경향이 강하다. 왜냐하면 곰만이 사람으로 변해서 단군을 낳고 우리의 국모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²⁾ 이런 관점에서 곰이 과연 우리 민족과 어떤 상관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호랑이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적이다. 이것은 당대적인 문화현상 뿐만 아니라 현재적 시점에서 이들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상징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들 동물은 누구인가. 당시 지상의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이들을 묘사한 것이라면 동물이라는 장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 동물의 상징성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등 여러 의문을 해명하는 것이 본 글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겠다. 특히 한국문화의 원류인 단군신화에서 말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동물 중심으로 밝히려고 한다.

II. 檀君神話의 敘事構造에 나타난 動物의 役割

단군신화에서는 주인공이 단군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화의 주인공은 환웅을 둘러싼 곰과 호랑이에 있다. 그러한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단군신화』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온당하다. 단군신화는 일

1) 단군신화에 대한 최근 연구업적은 크게 역사학계가 중심이 되어 발간한 것으로서 노태돈 편저의 『단군과 고조선사』(세계질, 2000.)와 단군학회가 남북한 학자들의 글을 모아 발간한 『단군과 고조선 연구』(지식산업사, 2005.)가 주목된다. 이들의 책명에서도 알려주듯이 단군을 고조선의 건국시조로 인식하고 있음을 일반적인 시각이다.

2) 단군신화에서 곰에 주목한 논의로는 신종원의 「단군신화에 보이는 곰[熊]의 實體」(『韓國史研究』, 한국사연구회, 118호, 2002. 1-33쪽.)와 이정재의 「시베리아의 곰 祭儀, 곰神話와 단군신화의 비교」(『韓國民俗學報』, 韓國民俗學會, 1995. 27-61쪽.)가 있다.

연의 『삼국유사』에 수록된 내용이 일정한 서사구조를 갖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삼국유사』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今妙香山)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兩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遺靈艾一柱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忍 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儉).³⁾

이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 인간 삼백육십여사를 주관하고 在世理化를 하였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웅이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교화를 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 단락에 곰과 호랑이가 같은 동굴 안에 살고 있었다는 기록을 보인다. 이 기록은 앞서의 내용과 달리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아마 이들 종족은 환웅의 치세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의 주장이 대두되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곰을 숭배하는 종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종족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문맥상으로 볼 때는 호랑이와 곰이 인간으로 변신하기를 원하는 동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곰과 호랑이가 생산기능을 갖고 있는 여성적 속성을 지닌 존재로 이해한 결과이다. 그러나 환웅은 곰을 선택하고 웅녀는 단군을 낳는다. 곰의 여성적 생산기능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볼 때 우리와 시베리아의 북방문화적 요소와는 다른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시베리아와 같은 북방문화에서는 곰을 대개 수컷으로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단군신

화에서는 곰이 암컷으로 등장하며, 이런 한국 내에서의 전통은 곰나루전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암컷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차이에는 미묘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곰은 여자의 신체를 얻었다. 원래는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했지만, 그 성별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왜 여자로 변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이것은 환웅이라는 신의 성별이 남성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것처럼 일반적인 신의 성별은 바로 남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곰이 사람으로 변했을 때의 성별은 여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환웅과 대응할 만한 문화적 짝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그 상대의 성별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만약 호랑이가 변신을 했을 경우라도 이런 사정은 벗어나기 어렵다.

이정재는 시베리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곰과 동거하는 사람이 여자이지만, 한반도에서는 주로 남성으로 나타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하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곰 대신에 호랑이에게 잠깐간 '호쳐녀'이다. 그런데 곰과 호랑이를 같은 존재로 인식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비교를 한 이유는 명쾌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⁴⁾

그러나 이런 곰의 성별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단순하지 않다. 시베리아 지방에서 곰을 남성으로 상징한 것은 수렵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곰은 한 씨족의 조상신으로 받아들여 모시고 있다.⁵⁾ 이런 사정은 우리와는 판이하게 차이가 있는데, 웅녀의 경우 생산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상 단군신화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곰이나 호랑이가 처음부터 여성의 신체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단지 인간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런 흔적들은 여우가 천명의 간을 먹으면 여성이 된다는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곰은 썩과 마늘

4) 이정재, 『동북아의 곰문화와 곰신화』, 민속원, 1997, 249-250쪽.

5) 시베리아의 투바에서 조사한 내용은 좋은 예이다. 여기서 투르크족의 시조 이야기를 채록한 바 있는데, 곰과 여자가 낳은 자식이 시조였다는 것이다.(김종대, "구비전승",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투바인의 삶과 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5, 337쪽 참조.)

3) 『三國遺事』卷 第一 紀異 第二, 古朝鮮條.

을 먹으면서 금기를 지켜서 여성의 신체를 갖게 된다. 금기의 내용은 백일 동안 햇빛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三七日을 거쳐서 곰은 여성이 되었다.

곰이 여성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음식물인 썩과 마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햇볕을 백일 동안 보지 않기로 할 수 있다. 썩과 마늘의 신통력은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고 중요한 것은 백일동안 햇볕을 보지 않음은 죽음을 상징한다. 단군신화에 나타난 것처럼 백일의 상징은 한국 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여 왔는데, 백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수로 자리잡아왔다. 여우가 사람의 간을 백 개 먹으면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나, 영아가 백일이 지나면 잔치를 벌여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 되었음을 축하하는 것들도 백이 지닌 상징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단군신화의 곰과 호랑이에게 백일을 요구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간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글의 문맥에 나타난 것처럼 동물적인 본능과 신체에서 사람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⁶⁾ 이것은 곰과 호랑이로 상징되는 수렵문화적 흔적에서 농경문화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문화적 변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곰과 호랑이는 채식하는 동물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곰과 호랑이로 상징되는 종족들의 문화가 바로 수렵문화를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곰과 호랑이에게 썩과 마늘을 식량으로 준다는 것은 채식으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농경문화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백은 그러한 문화적 전환의 상징적인 수로서 이해될 만하다.

이러한 농경문화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단군신화에서 곰과 호랑이의 신격은 생산신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단순히 수렵문화에서처럼 많은 동물을 사냥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대상이 아니라, 보다 많은 수확을 기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앙적 대상물로의 전환과 그 기능은 과연 곰과 호

랑이가 우리 민족과 어떤 연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피는데 보탬을 준다. 특히 웅녀는 단순한 生産神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단군이라는 시조신의 어머니라는 위치에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환웅이라는 천손과 웅녀와의 결합이라는 장치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웅녀는 단순한 인격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웅과 결합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神이어야만 가능하다. 신과 신의 결합을 통해서 탄생한 시조라는 장치는 주몽신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인 까닭에서이다. 따라서 신으로 좌정한 웅녀와 함께 신화의 무대 중심에서 탈락한 호랑이 역시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III. 곰과 호랑이의 象徵과 그 文化的 脈絡

1. 信仰對象物로 나타난 곰과 호랑이

곰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환웅과 대응할 수 있는 존재로는 신이라는 관점에서 곰도 역시 神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⁷⁾ 그러나 한반도 내에서의 곰에 대한 신앙은 그다지 많이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곰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설로서 전해지며, 그 대표적인 예는 웅진의 곰나루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상 곰을 신으로 표현한 내용으로는 『三國遺事』에 기록된 〈惠通降龍〉을 들 수 있다. 혜통이 당나라에 있을 때 공주가 병으로 위독하였는데, 공주를 괴롭힌 용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고 한다. 이 용은 신라로 건너와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기장산으로 들어가서는 熊神이 변신하여 해독을 심하게 끼쳤다. 이에 혜통이 용을 타일러 해독을 멈출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을 보면 용의 또 다른 분신으로 곰이 되어 신격화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어떻게 용이 곰으로 변신을 하고 또 신으로 좌정했을까 의문이 든다. 즉 용이 곰과 동격으로 등장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6) 이 부분에 대한 견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朴容淑의 글로서 곰과 범의 인간화는 신이 인간으로 바뀌는 '身分上的 轉換劇'이라고 말한 바 있다.(『神話體系로 본 韓國美術論』, 일지사, 1975, 54쪽.)

7) 신중원, 앞글, 6쪽.

내용이라는 점에서 표현이 의문을 품을 만하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용이 곰으로 변신하였다는 것은 神格에서 동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용은 신라시대에 護法龍에서 護國龍으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을 관장하는 水神의 기능까지 갖춘 존재였다. 이런 존재가 곰으로 변해 사람으로 괴롭혔다는 것은 용의 기능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음을 뜻하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⁸⁾ 따라서 이 대목은 곰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결과라는 점에서 옹녀와 대응할 만한 존재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것은 곰이 과연 우리 민족에게 신앙적 대상으로 자리했는가를 확인하는 증거로 보기에 너무나 미흡하다. 최근 공주지역에서 곰을 신격화한 제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큰 차이가 없다.

곰과 달리 호랑이를 신앙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한반도 전역에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곰문화보다는 호랑이문화가 우리 민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호랑이가 신앙적 대상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은 『三國志』魏志 東夷傳 濊條에 나타난다. 즉 '祭虎以爲神'로서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호랑이가 신으로 좌정했다는 사실은 한반도 내에서 두루 찾아질 수 있는 신앙적 특징이다. 산신으로 모셔지는 마을신앙의 신체들도 대부분 호랑이로 표시되며, 이들 호랑이는 대개 여신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생산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산들, 예컨대 지리산이나 치악산 등 남한 내의 유명한 산들에 좌정한 산신들의 경우 대체로 여신격으로 표현된다.⁹⁾ 경상도의 산간지역에서도 산신을 대상으로 모실 때 이들 신체는 호랑이로 표현한다고 한다.¹⁰⁾

이러한 사정은 호랑이가 한반도 내에서 신격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음을 잘 보여준다.

원래 곰과 호랑이는 수렵문화를 배경으로 삼은 신앙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 내에서는 수렵문화보다는 농경문화로 전환이 신석기 시대로 이루어지면서 수렵문화적인 神體가 농경문화를 담당하는 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호랑이가 여신으로 자리잡고 생산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당대의 문화를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고려의 왕건이 자신의 가계도를 신성하게 만들면서 호랑이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도 호랑이의 여성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사실 가계도를 보면 작제건과 서해옹녀와의 결합, 그리고 보육의 삼한을 소변으로 덮는 꿈 등으로도 신성성이나 왕건의 삼국 통일의 면모를 엿보는데 충분하다. 그럼에도 호경장군을 등장시켜 과부인 산신과의 결합을 삽입한 이유는 당대의 신앙적 대상으로 호랑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고려가 건국하던 당대의 민중들의 믿음 대상은 바로 호랑이 중심이었다는 점이다. 이 호랑이는 신라 이래로 유명한 산마다 좌정하게 되는데, 그 역시 여성들 중심이다.¹¹⁾

따라서 한반도내에서 곰보다는 호랑이가 중심적인 신격으로 자리잡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문화적 배경은 호랑이에 더 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은 환웅과 곰이 결합했기 때문에 호랑이는 그 존립 위치가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호랑이를 믿는 종족들은 그 지역에서 살지 않고 한반도로 남하하여 한반도의 진정한 조상으로 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상 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거나 제의를 하는 종족들은 한반도보다도 위쪽에 위치한 몽고나 시베리아 등의 북반구 중심으로 거주하였다는 점은 그런 면모를 읽는데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文化的 象徴으로 바라본 곰과 호랑이

곰과 호랑이가 우리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동물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징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8) 김종대,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다른세상, 2001, 78쪽.

9) 산신의 여성성을 명쾌히 보여주는 글로는 孫晉泰의 "朝鮮 古代 山神의 性에 就하여" (『震檀學報』1號, 震檀學會, 1934, 149-150쪽.)가 대표적이다.

10) 이기태, "동체를 통한 경북·경남 산간신앙의 이해", 『산간신앙 III』,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250쪽.

11) 孫晉泰가 제시한 母가 들어간 母岳·大母山·婦山·母岳山·母山·母后山·慈母山 등의 유형군이 좋은 예라고 하겠다. 특히 이들 산의 이름은 순한글로 부를 때 어미산이나 할미산 등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앞글, 149-150쪽.)

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과연 이들 두 동물은 우리에게 단순한 동물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견해이다.

1) 곰,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러나 미련한 동물

곰의 경우에는 수렵문화적 흔적을 그대로 지닌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시베리아의 수렵민족이나 일본의 아이누족 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곰의 신성성은 그런 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하지만 한반도 내에서는 곰의 존재보다는 호랑이의 신성성이 더욱 강화되어 나타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 민족은 곰과 호랑이를 어떤 문화상징으로 이해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곰에 대한 상징성을 보면 신성함을 찾기 어렵다.¹²⁾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보면 단군신화의 곰이 겨울잠을 잔다는 생태적 특징 때문에 곰의 재생가능을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 이것은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로 이해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곰의 웅담이나 쓸개가 보약의 평가받는 이유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함께 곰을 女性的 存在로 이해하여 왔다. 물론 이것은 옹녀 이래로의 성적 선택이 여성으로 자리잡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 전설 시대에 있어서도 곰은 여성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곰나루 전설도 곰을 여성으로 상징시킨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곰의 여성성은 인간인 남성과 결합하여 인간적인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더욱 강조된다. 하지만 이런 곰의 여성성은 이여송 전설에 나타난 것처럼 출신에 대한 비범함이나 신이함보다는 평하의 대상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단군신화의 옹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곰의 평하문제는 미련함으로 극치에 이른다. 곰의 미련함은 속담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보면 ‘곰보다 더 미련하다’, ‘미련하기가 곰이다.’ 등을 들 수 있다. 곰이 미련하기 때문에 무슨 재주라도 있다면 그것은 흥밋거리가 될 수 있는데,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곰의 미련함은 다른 동물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곰의 미련함을 이용해서 사냥을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곰은 언제나 다니던 길로 다닌다. 산골에서 곰이 다닐만한 길목에 돌을 담은 망태기를 나무에 걸어 놓는데, 곰을 지나가다가 부딪치게 되면 화가 나서 다시 머리로 박는다. 그러다가 점점 세계 부딪쳐서 나중엔 머리가 깨져서 죽는다고 한다.

곰이 동굴에서 동면하지않고 고목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고목을 발견하면 양쪽의 큰 구멍을 막고 중간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 놓는다. 그러면 곰이 그 구멍으로 발을 내놓는데, 이때 칼로 잘라낸다. 곰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발도 모두 내놓기 때문에 발을 모두 잘라서 포획하기 쉽게 된다.

곰을 잡기 위해선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가 같이 산에 오른다. 산길을 가다가 곰을 발견하면 세 사람이 모두 곰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공격한다. 할아버지가 때리면 곰이 할아버지를 향해가는데, 이때 아들이 때린다. 그러면 곰이 아들을 향하는데, 다시 손자가 곰을 때린다. 곰을 손자를 향해가고 다시 할아버지가 곰을 때리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때리면 곰은 덤비지도 못하고 맞아 죽게 된다.¹³⁾

이처럼 곰은 미련하다. 하지만 곰의 미련함을 긍정적인 우둔함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실제 행동에서는 우둔하고 미련하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아마도 단군신화에 출현하는 옹녀 때문이 아닐까 판단된다.

2) 호랑이, 용맹함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神

이와 달리 호랑이는 현재도 神이라고 하는 신성한 존재로 이해되고, 특히 민간신앙에서는 믿음의 대상으로 모셔져 오고 있다.¹⁴⁾ 호랑이가 산신으로 좌정한 것은 매우 오랜 시기로 소급되는데, 이것은 수렵문화적 바탕에서의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농경문화로 전환되면서 호랑이는 이전 시기의 신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호랑이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산신신앙이 마을신앙, 특히 鎭山을 정해서

13) 조희웅, 『韓國口碑文學大系』1-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280-283쪽 요약.

14) 호랑이의 상징성은 김중대의 앞책(422-439쪽.)을 참고할 것.

12) 곰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김중대의 『우리문화의 상징세계』(74-93쪽)를 참고할 것.

마을을 수호하기를 기원하는 신앙이 형성되면서 산신신앙은 농경사회에서도 그대로 수용된다.

호랑이가 귀신을 잡아먹는다는 능력은 歲書에 그려진 장군이었던 신도(神荼)와 울루(鬱壘)와 관련된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도와 울루는 상고시대의 인물로 惡鬼를 잘 잡았다고 한다. 이들이 잡은 귀신들은 늙은 호랑이에게 먹었는데, 이후로 세화에 호랑이가 그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⁵⁾

한국에서도 호랑이는 단지 귀신을 잡는 존재로서의 기능만을 한 것은 아니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 호랑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산신제와 관련하여 많은 지역에서 신으로 모셔왔다. 한반도 내에서 호랑이가 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다 명쾌히 알 수 있는 기록은 『高麗史』로서, 왕건의 5대조였던 호경과의 관련한 기록이 그것이다. 호경은 원래 부인이 있었는데, 평나산 산신이 호랑이로 나타나 데리고 갔다. 이 산신은 오랫동안 과부였기 때문에 호경과 더불어 神政을 베풀고자 하였다는 것이다.¹⁶⁾ 흥미로운 것은 신라 말기에도 산신이 호랑이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전통은 최근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호랑이의 피해가 많았던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는 호랑이와 관련한 풍속을 찾아볼 수 있다. 강원도의 영월이나 정선지방에서는 호식장이라는 풍속이 있었는데, 호랑이에게 잡혀먹힌 사람을 위해 치루는 장례의식이다. 경상북도의 해안지방에서는 범국이 전승되었는데, 이 역시 虎患을 당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해원국이다.

이와 같은 호랑이의 존재는 효자를 도와주는 영물로서 등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효자를 도와준 호랑이 이야기는 좋은 예이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三年 侍墓를 정성껏 한 효자가 있었는데, 어느날 밤중에 어머니가 별안간 병에 걸렸다. 약을 구하러 멀리 가야하는데, 그때 호랑이가 등에 태워 순식간에 다녀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호랑이가 단순한 동물이나 맹수가 아니라, 신의 의지를 잘 알고 있는 존재로서 이해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15) 洪錫謨 編, 『都下歲時記俗詩』(秦京煥 역주), 보고사, 2003, 86-87쪽 참조.

16) 『高麗史』, 高麗世系.

IV. 結語

단군신화에 나타난 곰과 호랑이는 모두 신성한 존재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단군시대에는 곰과 호랑이가 신으로 모셔졌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런 사정은 현재 전승되고 있는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곰과 호랑이의 신앙대상으로 모셔지는 지역은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단군신화가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기원을 살펴보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곰이 신앙적 대상으로 전승되고 있는 지역은 한반도보다는 그 윗 지역인 시베리아와 몽고, 만주, 그리고 홋카이도 등으로 나타난다. 한반도에서는 오히려 호랑이를 중심으로 한 신앙적 특징이 강하다. 또한 곰은 미련하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런 측면보다는 산신으로 상징되는 神聖이 그대로 존속하며, 악귀 등을 물리치는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믿어 왔다.

이와 같은 대립된 관념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곰을 신앙적 대상으로 선택한 단군신화의 지역은 한반도보다는 더 북방지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곰보다는 호랑이를 중심으로 한 신앙적 전승력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단군신화에 나타난 동물을 근거로 하여 한민족의 형성지역이 현재보다는 북방이라는 점을 추정하는 시도로 작성되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할 예정으로 있다.

參考文獻

『三國遺事』

『三國史記』

『高麗史』

『星湖僊說』

김종대, 『한국의 도깨비연구』, 국학자료원, 1994.

김종대,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다른세상, 2001.

김종대, 『한반도 중부지방의 민간신앙』, 민속원, 2004.

- 金和經, 『韓國說話의 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87.
- 노태돈 편저,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 단군학회 편, 『단군과 고조선연구』, 지식산업사, 2005.
- 이은봉 편, 『檀君神話研究』, 온누리, 1986.
- 이정재, 『동북아의 곰문화와 곰신화』, 민속원, 1997.
- 崔常壽, 『韓國民間傳說集』, 通文館, 1958.
-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투바인의 삶과 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5.
- 孫晉泰, “朝鮮 古代 山神의 性에 就하여”, 『震檀學報』, 1號, 震檀學會, 1934, 145-155쪽.
- 신종원, “단군신화에 보이는 곰[熊]의 實體”, 『韓國史研究』, 118호, 한국사연구회, 2002, 1-33쪽.